



연중 제15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하느님의 밭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꾸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느님 말씀의 씨가 위대하고 훌륭하다 해도 그 씨를 받아서 싹을 틔우는 땅이 나쁘면 헛수고가 됩니다. 마치 농부가 땅을 쟁기로 갈고 거름을 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꾸고 살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풍작을 기대하고 봄에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삶의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 삶의 밭에 씨를 뿌리십니다. 성사 생활을 통해서,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도 당신의 씨앗을 우리 삶 안에 뿌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수도 없이 우리의 삶 안에 뿌려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잘 가꾸어 놓은 좋은 땅이라면, 지금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사 생활을 하고, 강론을 듣고, 똑같이 피정을 받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 열매를 맺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떤 이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내 삶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바닥이나 돌밭, 가시덤불에 덮인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내 삶이 온갖 욕심과 욕망으로 꽉 차 있으면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내 삶의 밭에 평화의 씨앗을 뿌렸는데 평화롭지 못하면 그것은 내 자신의 밭이 돌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삶의 밭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분명 내 자신의 밭이 가시덤불로 덮여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내 삶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느님께서 뜻하는 바를 이루며, 하느님께서 내린 사명이 이루어지고 완수되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우리는 하느님의 포도밭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박호철 요한 신부 | 진례본당 주임



제 1 독 서 이사 55,10-11
화 답 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제 2 독 서 로마 8,18-23
복 음 마태 13,1-23 또는 13,1-9

주일 진례

농민 주일 할인행사와 계절별 1차 농산물 물품 안내

농민 주일(7월 19일)에 우리 농산물 10%할인 행사를 합니다. 각 본당 우리농 나눔터의 많은 애용바랍니다.
개인 주문 5만 원 이상 구매시 택배 발송합니다.

■ 주문전화: 055·582·7010~2 ■ 홈페이지: www.mswrn.kr ■ 카페: <http://cafe.daum.net/masanganong>



4월
봄나물

하동 - 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취나물, 고사리, 두릅,
엄나무순



4월
딸기

합천 - 품명은 육보. 새콤 달콤
함이 일품, 속이 꽉차고
과즙이 풍부하며 오래감



5월
토마토

합천 - 완숙으로 수확.
영양가 리코페놀이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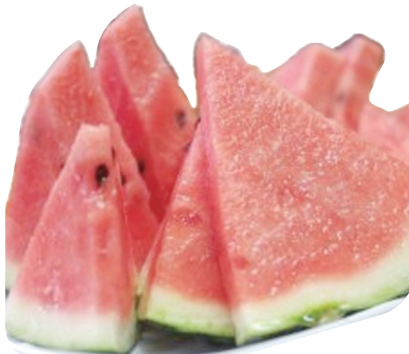
5월
매실

하동 - 유기농 매실, 청매실



6월
양파

함양 - 적색양파, 흰양파를 생산
하고 완숙일 때 수확하여
영양이 풍부함



6월
수박

대산 - 흑수박,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은 무농약 재배



6월
마늘

합천 - 장아찌마늘과 저장용
밭마늘을 생산



6월
자두

대석, 포무사 품종을 생산.
단단하고 당도가 높음



6월
블루베리

함양 - 휴천면 지리산 칠성계곡
해발 500m고지에서 수확



7월
찰옥수수

합천 - 해인사 산골 고라니와
사투를 벌여 수확.
식감이 부드럽고 단맛이
뛰어남



8월
복분자

거창 - 황토밭에서 자라 단맛과
식감이 부드러움



9월
배

산청 - 경남 유일의 유기농 배
(원황, 풍수, 황금, 신고) 생산



10월
사과

함양 안의 - 해발 300m고지에서
생산. 육질이 달고
단단함



10월
단감

사천 - 부유 품종, 껍질이 얇고
육질이 부드러움



11월
참다래

고성 - 해풍을 맞고 자라 과육이
부드럽고, 향이 좋음



11월
감말랭이

하동 - 대봉감을 깎아서 말림,
유황 처리를 하지 않음



10월
쌀

유기농 쌀, 메뚜기가 판치는 산
청 차황과 하동 옥중에서 생산
(녹미)



10월
잡곡류

전국 가톨릭 농민회 회원들이
생산하는 16종 잡곡



연중
표고버섯

대산 - 국내산 배지 사용.
맛과 향이 뛰어남
생표고, 말린표고



연중
느타리버섯

의령 - 균상재배 방식으로 맛과
향이 뛰어남
생느타리, 말린느타리

사도행전 읽기 8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스테파노의 일로 박해가 일어나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해를 계기로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일은 우리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티오키아 교회의 설립과 그리스도인

알렉산더 대왕의 사망 후 소아시아 지역의 통치자가 된 셀레우코스 임금의 자신이 물려받은 새 왕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 지중해 연안에 수도를 짓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키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안티오키아는 시리아라고도 불리는,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 땅을 아우르는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당시 안티오키아는 50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여 살았는데, 이곳 안티오키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회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11,19는 스테파노 순교로 흩어진 제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안티오키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루카는 처음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강조합니다. 초대 교회의 이러한 분위기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 1,16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오로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라고 선포합니다.

초대 교회 때에는 바오로의 말처럼 복음 선포자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루카는 안티오키아에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리스계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시 유대교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디아스포라를 거치면서 회당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들’(God-fearer), 혹은 ‘개종자’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선 많은 이방인들은 이미 유대교에 익숙했던 개종자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를 섬기는 이들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존의 유대인과 따로 구분해서 부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붙여준 이름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이름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바로 ‘천주학생이’입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르나바를 파견하여 안티오키아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 신자들을 격려하다가 일손이 모자라자 타르수스로 가서 바오로를 데려옵니다. 그렇게 하여 둘은 함께 일하며 일 년 가량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사도 11,26). 이 일년여의 기간 동안 바오로는 바르나바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바르나바가 없었다면 바오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박해자 바오로의 진면모를 알아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곁에 둔 바르나바의 용기가 없었다면 역사는 바오로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의 활동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은 안티오키아 교회는 바오로 선교여행의 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활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곳 교회를 설립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교회 전승은 안티오키아를 베드로의 첫째 딸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후에 안티오키아의 주교가 되었던 이냐시오 성인은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매우 뛰어난 명성을 지녔던 성인은 황제의 명에 의해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합니다. 성인께서는 압송되는 길 가운데 일곱 통의 편지를 남기는데, 이 편지들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학자들은 마태오 복음서도 이곳 안티오키아에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저술되었다고 보는데, 안티오키아는 이처럼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유다 지방 신자들을 위한 구호 헌금(사도 12,27-30)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이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보스가 기근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그는 사도 21,10-11에 다시 등장해서 사도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수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예언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가보스가 예언한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곧 47~48년 사이에 로마 제국 곳곳에서 실제 기근이 일어났다는 역사적 보고가 있습니다. 더욱이 48년에는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티나 지방의 기근은 더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식년에는 경작지도 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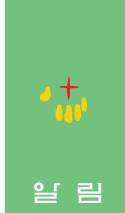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자 안티오키아 신도들은 각자 힘닿는 대로 헌금하여 바르나바와 사울의 손을 거쳐 예루살렘 교회 원로들에게 보냅니다. 선교의 중심지가 될 안티오키아 공동체는 이처럼 언제나 예루살렘 교회와 연대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연대하는 분위기는 사도 바오로의 편지글들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자주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한 모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안티오키아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공동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관심사였습니다(로마 15,25-27; 1코린 16,1-4 등).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바르나바와 사울이 구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즈음, 헤로데 임금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됩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헤로데의 죽음 이야기로 마무리될 것입니다(12,20-23).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 탄생 때 등장한 헤로데가 이제야 죽음을 맞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세 명의 헤로데가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많은 아이들을 죽음에 빠트렸던 임금 헤로대를 우리는 헤로대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다인이 아닌 이두메아 사람으로 로마에 큰 기여를 한 다음 유다 땅의 임금이 된 아버지 안티파텔에 이어 유다 임금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로데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실 때 등장하는 헤로대로 헤로데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로데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갈릴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지방 영주로 공식적인 임금 칭호를 지니지는 못했던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로데 임금은 '아그리파 1세'로 헤로데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파 역시 로마 황제를 돕게 되어 41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서 임금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헤로대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로대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구약의 파라오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곧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는 임금들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깁니다.



교구/본당

전국 홍보국장 회의

일시: 7월 14일(화)

장소: CBCK

전국 성소국장 회의

일시: 7월 17일(금)

장소: CBCK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일시: 7월 18일(토) 13:00~19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통독범위: 티모테오1·2서, 티토서, 필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1·2서

대상: 성경에 관심 있는 청년,

선착순 20명 마감(전원 1인실)

참가비: 1인 6만 원

신청: 7월 12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46차 창세기 연수

일시: 8월 16일(주일) 14:00~20:30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일시: 8월 21일(금) 16:00~23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2번의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 서시몬(시몬) 신부

대상: 창세기 성경그룹공부를 수행하고

연수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

문의: 임기호 보니파시오 010·6245·4967

파견미사: 8월 23일(주일) 14:00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봉사자 교육

일시: 하반기 - 8월 22일(토), 8월 23일(주일),

9월 6일(주일)

09:30~18:00 (총 3일)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인원: 선착순 20명

참가비: 11만 원(점심 포함)

신청: 7월 31일(금) 18:00까지,

Fax- 055·249·7029 또는 gasamok2@cathms.or.kr로 신청

계좌: 농협 301-0003-8497-31 (재)마산교구,

※ 본당+참가자 실명으로 입금

(예-양덕동홍길동)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제17차 약혼자주말

일시: 9월 4일(금) 19:30~6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2년차 미만의 신혼부부

교육비: 1인 14만 원(부부당 28만 원)

신청: 8월 9일(주일)까지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FAX- 055·249·7029

위원회/기관/단체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7월 15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Co. 및 Cu. 단장 연수회

일시: 7월 19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교구 레지아 055·249·7115

203차 ME주말 안내

일시: 7월 17일(금) 19:00~19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수도회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제주생지순례 3박4일 28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미디어국 055)249-7072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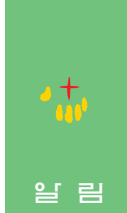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마산 예경요양병원 예경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양업고등학교 가톨릭 좋은학교 연수

일시: 8월 1일(토) 10:30~21:00
 대상: Quality School에 관심있는 학부모, 교사, 일반인

접수: 학교 홈페이지(7월 20일부터 선착순)

문의: 충청북도 청주 양업고등학교
 043·260·5076
 ※ 2021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도 겸함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안내

관상적 기도와 사도직에 관심있으신 분
 대상: 만 55세 이하의 남녀 신자
 문의: 010·8525·1150

기 타

한국평협 가정 선교 체험 공모전

주제: 가족 간 선교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한 수기
 형식: A4 10포인트 2~3장(200자 원고지 기준 20~30매)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신자
 접수: 8월 31일~9월 29일, 메일 또는 우편 접수
 문의: 02·777·2013
 ※ 시상 및 자세한 공모 내용은 www.clak.or.kr/ 모바 일엽 [한국평협] 참조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7월 18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0 여름김장 나누기

부탁해!! 여름김장

지난해 기부에 동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에 놓여 더 힘겨운 우리 이웃을 위해 올해도 여름김장을 담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에게 김치3종셋트를 선물해 주세요.

단기모금기간 : 7. 17.(금)까지

후원 계 좌 : 경남 580-07-0011610 성산복지관 (입금시 김장+입금자명)

※ 후원시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 문 의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부탁해!! 여름김장

모금기간 : 2020.07.17까지

건강이 염려되는 복지사각 이웃에게
 만원의 행복으로
 김치3종셋트를 선물하세요

후원계좌 경남은행 580-07-0011610

입금시 김장+입금자명

(후원 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282-3737)

용원성당 종탑 십자가 축복식



용원성당(주임: 이정근 요한 신부)은 지난 7월 3일 총대리 최봉원 야고보 신부 주례로 종탑 십자가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80여 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여 기쁨을 나누었다. 용원성당은 2019년 8월 17일 기공식을 시작하였고, 이날 종탑 십자가를 설치함으로써 성전 골조공사를 완성하였다.

총대리 신부는 강론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십자가로 변화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임 신부는 사고 없이 축복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현재 용원성당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모금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전 건립이라는 공동체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우들 모두 기도를 통해 마음을 모으며 노력하고 있다. 기금 모금을 위해 주방 세제(개당 1만 원)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례용품 및 작은 정성이라도 성전 건립을 위해 봉헌해 주실 후원자를 찾고 있다.

▶ 문의: 사무실 055·551·8416, 농협 351-1106-5639-63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교구 사제 인사발령

교구 사제 인사발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사 제 명	부 임 지	비 고
최 훈	사회복지국장 겸 가톨릭여성회관 관장	천마교 2020-124(7월 1일 부)
김 현 우	군중 전역	6월 30일 부
김 용	군중 전역	7월 1일 부
이 슬 기	탐라대성당(제주도 제주시 아연로 62-8 해병9여단)	천군교 2010-42(7월 3일 부)
김 승 태	명월성당(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수피령로 861)	